

## 1. 개 황

'96년 예상되었던 시멘트 수요량은 5천9백4십7만 톤이었고 이에 따른 시멘트 공급량은 6천6십4만톤이었다. 시멘트 수급은 원활히 이루어진 셈이다. 그러나 '96년 시멘트 수급은 안정적이지만 않았다. 상반기에는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다행히 하반기에

는 우려와 달리 안정세를 보였다. '96년에 시멘트 수급이 불안정해진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다. 몇몇 시멘트공장이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하여 생산량이 감소하였

다든가 기상조건이 양호해서 예상보다 시멘트 소비가 증가하였다는 등 여러 이유가 있었다.

'97년도 시멘트 수요량은 6천1백1십2만톤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6천1백80만톤 정도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출물량을 포함한 것으로 '97년에도 수요와 공급이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국내에 공급되어지는 시멘트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5천7백8십만 톤이다. 4백만톤 정도를 수입시멘트로 충당하게 되는 셈이다. 시멘트의 해외 의존도가 '96년 5.7%에서 '97년 6.5%로 0.8%포인트 증가하는 셈이다.

이렇듯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시멘트 수요의 증가속도에 비하여 국내 시멘트 생산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97년에도 수입선과 수입물량의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97년에도 '96년과 같은 수급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절적인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적정 시멘트 재고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정하고 있는 다소 수입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

# 1997年 시멘트 수급전망 및 대책

김 재 영 <국토개발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시멘트 수급불안정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적인 수급안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시멘트설비 확충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수입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국내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다. 이와 함께 해마다 나타나는 계절적인 불안정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멘트 유통체계를 꾸준히 개선하고 저장 사이로의 용량도 늘려가야 할 것이다.

## 2. 건설투자 동향

건설자재 수요를 유발시키는 건설투자는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각 부문별로 주거용 건설투자의 경우 소득과 주택가격변화 등에 영향을 받고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소득 수익율, 일반경기 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다. 토목용 건설투자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정책과 일반경기 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모두 경제성장과 관련이 있다. '97년의 경제성장률은 경기하강으로 '96년 6.8%보다 다소 낮아져 '97년에는 6.5% 성장할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건설경기도 '97년에는 건설경기를 부양시키는 요인보다는 건설경기를 억제하는 요인이 '96년에 이어 강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97년에도 건설경기는 침체국면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에는 '90년대 초와 같이 건설경기를 불안정하게 하는 충격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변동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96년 상반기부터 침체국면으로 접어든 건설경기는 지속적인 사회간접자본투자의 확대, 대통령 선거 등의 영향으로 토목건설경기의 주도하에 '97년 하반기 또는 '98년 초반에 저점에 도달한 후 점차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건설경기동향을 감안하여 건설투자동향을 살펴보면, '96년 건설투자는 당초 예상보다 1.0 ~ 1.5%포인트 감소하여 전년대비 6.6%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주거용 건설투자는 3년연속 주택경기 하강과 미분양주택의 적체등으로 전년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상업용, 공업용 건축허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와 관련 있는 문교·사회용 등 건축허가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년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토목용 건설투자는 사회간접자본투자 확충에 힘입어 17.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97년도의 건설투자는 하반기 건설경기의 회복과 경제외적 요인들의 반영으로 '96년보다는 나아져 전년 대비 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용 건설투자는 4년연속 주거용 건축허가의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96년의 감소에 따른 반등세로 감소세에서 소폭 증가로 반전하여 전년 대비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상업용·공업용 건축허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와 관련 있는 문교·사회용 등 건축허가의 지속적인 증가로 전년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목용 건설투자는 사회간접투자의 확대분위기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96년과 같은 증가세를 보여 14.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97년도에는 경제외적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상보다 토목투자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97년도 토목건설투자는 1.0%~2.0%포인트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총 건설투자는 7.0%를 다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면 '97년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설투자와 비주거용 건설투자 등 건축투자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토목용 건설투자의 강세로 인하여 '96년도의 증가세보다 다소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건설투자의 증가세는 시멘트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경제외적변수에 의하여 토목투자가 예상보다 1.0~2.0% 증가할 경우 전반적인 시멘트수급 뿐만 아니라 계절적 지역적으로 수급 불안정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면 다음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시멘트 수급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1〉 1997년 建設投資 展望

(단위 : 십억원(1990년불변가격, %))

구 분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용	총건설투자
'95	상반기 (%)	8,976 (4.0)	7,667 (14.0)	8,319 (8.1)	24,962 (8.3)
	하반기 (%)	9,395 (13.1)	7,829 (12.0)	13,410 (9.6)	90,634 (11.3)
	년간 (%)	18,473 (8.5)	15,496 (13.0)	21,729 (9.0)	55,596 (9.9)
'96	상반기 (%)	9,192 (2.4)	7,752 (1.31)	9,852 (18.4)	26,797 (7.3)
	하반기 (%)	9,732 (-7.1)	8,143 (4.0)	15,582 (16.2)	32,457 (6.0)
	년간 (%)	17,924 (-2.4)	15,896 (2.6)	25,434 (17.0)	59,254 (6.6)
'97	년간 (%)	18,032 (0.6)	16,160 (1.7)	29,173 (14.7)	63,364 (6.9)

주) 1996년 3/4분기 실적치를 토대로 예측

### 3. 97년 시멘트 수급동향

건설자재수요는 건설활동에 의하여 유발되어지는 수요이다. 따라서 건설자재수요는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용 등 건설부문의 단위투자당 자재소비량 즉 원단위를 근거로 추정한다. 각 부문별 원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건설자재수요는 건설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원단위는 1) 실제현장조사에 의한 방법 2)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각기 장단점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후자의 방법으로 주요 건설자재수요를 추산하였다.

한편 건설자재는 건설공정에 따라서 투입되기 때문에 생산/공급과 소비가 동일시점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시멘트나 철근의 경우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자재생산 공

장에서 출하량과 추정된 수요량은 다르며 변동양상도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때, 생산공장에서의 출하는 자재수요의 선행지표 성격을 지니며 실제 건설자재수요는 일정기간의 건설활동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건설자재수요는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투자의 유발수요로 보아 추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여기에서는 10억원의 건설투자를 할 경우에 유발되어지는 시멘트의 10억원당 수요량 즉 원단위는 1990년도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추정하였다. 주거용의 경우 원단위는 1,331톤/10억원, 비주거용의 경우 858톤/10억원, 토목용 건설투자의 경우 797톤/10억원으로 보았다.

건설투자액과 원단위를 이용하여 97년 시멘트 수요량을 추산한 결과 전년대비 2.8% 증가한 6천1백23만

톤이 수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각 부문별의 수요를 살펴보면 주거용 건설에 수요되는 시멘트가 39.3%, 비주거용과 토목용 건설에 수요되는 시멘트가 각각 22.7%, 38.0%로 주거용 건설에 소요되는 시멘트 수요량이 가장 많았으나 토목용 건설에 수요되는 시멘트량이 주거용과 거의 동일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경제외적요인으로 토목용 건설투자가 1%~2% 추가로 증가할 경우 23만톤 ~ 47만톤 정도 더 수요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멘트 공급능력은 국내생산분과 수입분의 합계로 판단할 수 있다. 국내 시멘트 생산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연평균 10.4% 증가하고 있

으나 1995년도에 들어서 시멘트 생산량 증가속도는 둔화하여 생산량은 6.8% 증가한 5천5백13만톤이었다. 1996년에는 생산량 증가는 이보다 더 둔화되어 생산량은 3.7% 증가한 5천7백1십9만톤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97년에는 이보다 생산량 증가율이 더 둔화되어 1.1%증가한 5천7백8십만톤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시멘트 공급의 해외 의존도가 점차 커져서 '96년 시멘트 수입량은 전년대비 65.7% 증가하였다.

'97년에는 수입량의 증가가 큰 폭으로 둔화되어 15.9%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97년의 수입 물량은 55만톤이나 증가하여 '96년에 비해 월평균 4

〈표-2〉 1996년 시멘트需給動向

(단위 : 천톤)

구 분		수요				공급		
		수용량	비중(%)			공급량	국내생산	수입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용			
'95	상반기 (%)	27,150 (7.6)	47.5	26.1	26.4	27,150 (9.3)	26,284 (9.9)	865 (-7.5)
	하반기 (%)	29,919 (11.6)	47.8	22.4	35.8	30,062 (3.3)	28,845 (4.0)	1217 (-12.0)
	년간 (%)	55,070 (9.7)	44.4	24.1	3.15	57,212 (6.0)	55,130 (6.8)	2,082 (-10.2)
'96	상반기 (%)	26,738 (7.9)	45.8	24.9	29.4	27,400 (0.9)	26,000 (-1.1)	1,400 (61.8)
	하반기 (%)	32,730 (5.6)	35.5	21.3	37.9	33,240 (10.6)	31,190 (8.1)	2,050 (68.4)
	년간 (%)	59,468 (8.0)	40.1	24.1	35.8	60,640 (6.0)	57,190 (3.7)	3,450 (65.7)
'97	년간 (%)	61,900 (2.8)	29.3	22.7	38.0	61,900 (2.1)	57,800 (1.1)	4,000 (15.9)

주1) 시멘트수요는 유발수요로 시멘트 출하와는 다름  
 2) 공급량 = 생산 + 수입 + 전월재고임  
 3) 각 부문의 시멘트 수요 = 신규건설 + 보수분임

만6천톤 정도 추가로 시멘트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97년의 시멘트 수급안정은 수입물량의 적기확보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 4. 대책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97년에도 시멘트 수급 안정을 낙관할 수 없다. 과거에는 계절적으로 시멘트 수급이 다소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으나 '96년부터는 계절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시멘트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멘트 공급구조가 취약성으로 인하여 불안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78년 건설경기과열기를 제외하고는 '89년까지는 우리나라는 시멘트 수출국이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 시멘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90년에 210만톤을 수입하였고 '91년과 '92년에는 707만톤과 555만톤을 수입하였다. 그리고 '96년에도 345만톤을 수입하였다.

같은 기간에 수출은 크게 감소하여 '90년 156만톤이었고 '96년에는 80만톤에 그쳤다. '97년에도 90만톤 정도 수출을 할 계획이지만 국내 시멘트 시장여건상 이 계획이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90년대에 들어서는 수입을 통해서 시멘트 수급을 조정할 셈이다. 이렇게 시멘트의 자금자족 기반이 취약해짐에 따라서 시멘트 수급불안정이 구조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적인 수급안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시멘트설비 확충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수입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시멘트 수요구조의 조정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멘트수요는 건설생산기술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멘트 수요구조를 단기간에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건설산업부문에서는 시멘트 수

급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시멘트를 절약할 수 있도록 건설생산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단기대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단기대책으로는 '97년도 시멘트 수입선을 년초부터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시멘트 비수기에 시멘트 재고를 확보해 놓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멘트 저장능력도 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멘트 수입선 확보나 저장능력의 제고가 용이한 것은 아니다. 동남아나 동북아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경제성장과 산업활동 증가에 따른 건설붐으로 시멘트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선확보도 용이하지 않으며 시멘트는 장기간 저장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시멘트 수입선의 확보와 저장능력의 제고는 시멘트 생산업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건설업체도 협력하여야 한다. 대규모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시멘트 수입선 확보를 위해 공동노력을 계속해야 하고 시멘트 저장 [싸이로]도 지속적으로 건설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설업체가 시멘트 수입선을 원활히 확보하고 저장능력을 효과적으로 확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통상산업부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원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국내시멘트 생산량의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친환경적인 시멘트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97년이 다른 해와 달리 시멘트 수요의 불확실성이 더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수입시멘트 물량을 10%정도 더 늘려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